

부산지역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통한 음악비평 활성화 방안

박진홍*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클래식 음악비평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 IV. 부산의 음악비평 활성화 방안
- V. 결론 및 제언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부산 지역 음악비평 독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음악비평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독자들을 음악 생산자와 음악 소비자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음악 생산자는 직접 다양한 음악적 현상을 만들어 음악비평의 대상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작곡가, 연주자, 공연 기획자 등이다. 음악 소비자는 공연, 음원, 음반 등을 통해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 음원 또는 라디오 등의 청취자,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여 직접 연주를 하거나 창작하는 아마추어 음악가 등이다. 설문 문항은 음악비평에 관한 지식 및 경험, 음악비평의 역할과 가치, 음악비평가의 전문성, 음악비평의 과제 등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겸임교수 / mbmlife@naver.com

에 관한 인식 내용이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 생산자 93명, 부산에 거주하는 음악 소비자 13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음악비평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악비평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음악비평이 활성화된다면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음악비평가가 다수 양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일반 학교 음악 교육과 전문 교육, 아마추어 동호회, 대학 교양 교육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비평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비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음악가들의 수용자세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독자들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종이로 된 지면보다는 전자 신문이나 SNS(Social Network System),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비평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간지나 잡지와 같은 종이 지면의 양적 증가도 필요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활용한 음악비평의 횡수의 증가와 보다 쉬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았다.

이에 연구자는 부산의 음악비평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 음악비평의 지면 증가, 전문 음악비평가의 양성, 학교 음악교육을 통한 음악비평 경험 확대, 음악비평 동호회의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악비평의 역할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비평의 저변이 확대되어 누구나 음악적 소재로 소통하고 이와 더불어 부산의 음악 문화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음악비평, 음악평론가, 부산음악문화, 음악비평의 활성화, 음악 생산자, 음악 소비자

I. 서론

최근 부산의 음악문화는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와 영리 단체의 소공연장 등을 통해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음악 공연의 비수기로 여겨졌던 7, 8월과 1, 2월에도 공연장 대관

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것을 체감하는 만큼 공연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음악 공연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음악비평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음악비평가들은 전문음악비평지가 없고, 음악비평에 대한 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으며, 질 높은 음악비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다. 하지만 부산 지역 음악계 내에서조차 이런 목소리들은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7년간 부산에서 발간되고 있는 정기간행물로 음악비평을 게재하고 있는 전문 잡지인 『예술에의 초대』, 『예술부산』, 『예술문화비평』 등에서 볼 수 있는 음악비평이 월 평균 3.5편에 불과하다(김원명, 2018, 308)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지난 2018년 10월, 한 달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챔버홀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만 61건에 달한다.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한 각 구청 소속 공연장과 사설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의 수에 비하면 월 3.5회의 음악비평은 너무나 미미한 활동이다.

앞서 언급한 세 잡지 외에도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의 일간지가 있고, 부산문화재단의 『공감 그리고』, 영화의 전당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이 있으나 최근 일간지들에서는 음악비평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잡지들에서도 그 수가 미미하여 평균의 수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20여 년 전인 1997년, 일 년 동안 340회 이상의 예술음악 연주회가 열렸음에도 연간 음악비평의 횟수가 71편(월 평균 5.9회)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김창욱, 2011)를 보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연주회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음악비평은 오히려 감소하여 쇠퇴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비평의 쇠퇴 현상이 부산 지역에만 한정된 사례

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음악비평을 고정적으로 게재하고 음악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던 일간지들이 그 지면을 줄여 가고 있다. 또한 전문 음악비평가보다는 일간지나 잡지사에 소속된 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 형태의 글로 대체되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즈는 미국 여러 지역의 일간지에서 음악비평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고, 고정적으로 음악비평을 게재하던 고용된 비평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D. J. Wakin, 2007년 6월 9일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으나 종이로 된 신문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기사를 선택해서 보게 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G. M. Maull, 2018년 1월 16일자).

이러한 현상을 보며 연구자는 음악회의 수는 늘어났는데 음악을 주제로 하는 글인 음악비평의 수가 줄어 든 원인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분야의 전문가들은 부산의 음악비평이 부진한 원인을 사회적, 경제적 보상의 부족, 음악전문잡지의 부재, 음악비평가들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비평 행위로 인한 음악계 내의 인간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을 꼽았다(김원명, 2018, 39). 이와 더불어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종이 지면을 읽는 독자의 수가 줄고,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옮겨 간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한편, 아마추어 비평가들 그리고 애호가들은 클래식 음악비평이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비평의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흔히 ‘주례사 비평’이라고 일컬어져 온 듣기 좋은 소리 일색의 평가에 대한 문제가 오래도록 제기되어 왔다. 한 예로 회원 수가 약 155,000명에 달하는 클래식 음악 웹사이트에서는 음악비평을 두고 ‘고민 없는 음악비평’,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음악비평’, ‘뻔한 음악비평’의 경향이 변해야 음악비평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글을

찾아 볼 수 있다(고클래식 웹사이트, 2015년 7월 7일).

그런데 이러한 클래식 음악비평의 우유부단함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에서야 생긴 일은 아니다. 1974년 아셴브레너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음악비평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허용성이 만연하여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음악 작품에 대하여 음악 요소의 상관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음향의 구현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음악을 듣고도 작곡가와 청중들을 즐겁게만 하는 음악비평가들의 서술을 문제시하였다(K.Aschenbrenner, 1974, 343-536).

연주자들 역시, 음악비평이 자신의 연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평가의 자질과 비평의 내용에 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고은미, 2018, 52-53).

음악 작품이나 연주가 예술성과 더불어 오래도록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작품 자체의 순수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작품 속에 녹여 내는 과정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음악비평 역시 글을 쓰는 음악비평가의 관점과 더불어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생각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그동안 음악비평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을 탐색해 본 결과, 독자들의 시각에서 음악비평에 관해 살펴 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음악비평가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본 음악비평의 현황과 문제점이었지, 음악비평을 읽는 독자들의 시선에서 음악비평의 역할과 가치, 현황과 과제에 관해 살펴 본 바는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음악 문화를 향

유하는 사람들이 음악비평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비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부산의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비평의 역할과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 지역 음악비평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음악비평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음악비평을 읽는 독자를 음악 생산자와 음악 소비자로 구분한다. 음악 생산자는 연주가, 작곡가, 기획자 등 클래식 음악 무대나 음반, 음원 등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음악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음악 소비자는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나 음원이나 음반, 라디오 등을 즐겨 듣는 청취자, 아마추어 연주자로서 음악 단체에 소속되어 음악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음악 애호가들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인터넷 설문지를 통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음악 생산자들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로 음악 관련 단체에 요청하여 단위 및 소속 음악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음악 소비자의 설문 참여를 위해 아마추어 음악 연주 단체에 설문에 응하도록 요청하였고, 금정문화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 등을 찾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에 응한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음악 생산자는 93명으로 여성 46명(49.5%), 남성 47명(50.5%)이었다. 음악대학 졸업 이후 음악가로서의 경력은 5년 미만 10명(10.8%), 5년~10년 26명(28.0%), 11~15년 20명(21.5%), 16~20년 11명(11.8%), 20~30년 19명(20.4%), 30년 이상 7명(7.5%)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시자들의 전공 분야는 국악 9명(9.7%), 현악 25명(26.9%), 관악 27명(29.0%), 작곡 2명(2.2%), 성악 10명(10.8%), 음악이론 2명(2.2%), 피아노 15명(16.1%), 음악 행정 또는 기획 3명(3.2%)이었다. 그리고 음악 분야에 대한 학습 정도를 학력을 통해 살펴 본 결과, 국내 음악 대학 졸업 23명(24.7%), 국내 음악 관련 석사 수료 또는 졸업 35명(37.6%), 국내 음악 관련 박사 수료 또는 졸업 4명(4.3%), 유학을 다녀왔으며 석사 학위에 준하는 과정 수료 또는 졸업 17명(18.3%), 유학을 다녀왔으며 박사 학위에 준하는 과정 수료 또는 졸업 14명(15.1%)으로 나타났다.

음악 소비자는 131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여성 87명(66.4%), 남성 44명(33.6%)으로 여성의 비율이 2배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47명(35.9%), 30대 19명(14.5%), 40대 36명(27.5%), 50대 26명(19.8%), 60대 이상 3명(2.3%)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클래식 음악의 분야는 국악 7명(5.3%), 현악 50명(38.2%), 관악 18명(13.7%), 작곡 9명(6.9%), 성악 14명(10.7%), 피아노 33명(25.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듣고 공연장에 가끔 가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2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듣고 공연장도 자주 가는 편이라고 한 응답자가 31명(23.7%)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좋아 하는 음악을 찾아 듣기는 하지만 공연장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16명(12.2%),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만 찾아 듣지는 않는다는 응답도 11명(8.4%)이 있었으며 공연장을 찾았으나 클래식 음악을 좋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명(0.8%)이 있었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클래식 음악비평에 관한 음악 생산자와 음악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 사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나 기관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면담하였다.

설문 문항은 참여자 정보(A), 음악비평에 관한 경험(B), 음악비평의 역할과 가치(C), 음악비평가의 전문성(D), 음악비평의 과제(E)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문항 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였으며, 음악 생산자는 27문항, 음악 소비자는 20문항으로 제작하였다. 각 항목별 설문 문항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항목별 설문 문항 내용

영역	문항 내용	
	음악 생산자	음악 소비자
음악비평에 관한 경험(B)	1) 음악비평에 관해 알고 있는 정도	
	2) 6개월 동안 음악비평 관련 글의 경험	
	3) 6개월간 읽어 본 음악비평의 지면 (중복 선택)	
	4) 읽어 본 음악비평의 지면 이름	
	5) 음악비평을 읽는 이유	
	6) 음악비평 게재 경험	
음악비평의 역할과 가치(C)	1) 현재 음악계에서 음악비평의 활성화 정도	
	2) 현재 음악비평의 음악 문화 발전 및 활성화기여 정도	
	3) 음악비평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4) 음악비평의 음악 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5) 자신과 관련된 음악비평을 읽은 경험	
	6) 자신의 연주에 관한 음악비평을 읽는 소감	
	7) 음악비평이 자기 음악에 미친 영향	
	8) 비판적 음악비평에 대한 수용	
	9) 음악비평 활성화에 관한 인식	

음악비평가의 전문성(D)	1) 음악비평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 2) 음악비평가에게 필요한 역량 3) 음악비평가의 필요 전공
음악비평의 과제(E)	1) 음악비평 활성화의 필요성 2) 음악비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복 선택) 3) 시민 대상 음악비평 동호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4) 주례사 비평에 대한 인식 5) 음악비평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술형)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음악 생산자 93명, 음악 소비자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산 지역의 전체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음악비평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

Ⅲ. 클래식 음악비평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1. 음악비평에 관한 경험

음악비평에 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음악 생산자는 40명(43.0%)이 그리고 음악 소비자는 49명(37.4%)이 알고 있으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음악비평에 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음악 생산자가 73명(78.5%), 음악 소비자가 96명(73.3%)이었으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많았다.

지난 6개월 간 음악비평을 읽어 본 경험에 관한 문항에 음악 생산자

는 69명(74.2%), 음악 소비자는 86명(65.6%)이 1회 이상 읽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음악잡지, 공연장 소식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음악비평을 접하였는데 특히 인터넷으로 읽은 경우가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장 많았다.

음악비평을 경험한 지면에 관해서는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각각 65.6%와 40.5%로 가장 많았다. 독자들은 공식적인 일간지나 월간지, 각종 소식지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비평을 읽게 되는데 이것은 글의 출처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한 편으로는 종이로 된 공식적인 지면은 주로 유료 회원으로 구독을 해야 제공되는 것으로 독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독자들이 음악비평을 읽는 이유는 음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음악 생산자 46.2%, 음악 소비자 38.9%로 가장 많았고, 음악회나 작품에 대해 비평가의 관점과 비교해 보거나 평소 음악관련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경험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어떤 지면을 통해 음악비평을 읽었는지 살펴 본 결과, 음악 생산자들은 부산의 일간지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을 들었고, 부산문화회관에서 매월 발간하는 예술에의 초대, 월간 객석 등을 통해 음악비평을 읽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읽어 본 경험은 있지만 어디서 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61명(65.6%)이었다.

음악 소비자의 경우도 음악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읽어 보기는 했으나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53명(40.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기사 23명(17.6%),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의 일간지가 17명(13.0%), 그리고 월간 객석 13명(9.9%), 예술에의 초대 8명(6.1%) 등으로 나타났다.

음악 생산자를 대상으로 음악비평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문적인 음악비평가가 아님에도 음악비평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명(32.3%)이나 되었다. 이들은 공식적인 지면에 음악비평을 게재해 본 경험이 있거나, 개인 블로그나 SNS, 공연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음악회나 음악작품에 관해 간략한 평을 올려 본 경험이 있고, 부산문화재단 공연지원사업의 전문 평가자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표 2> 음악비평에 관한 경험

응답		음악 생산자 (n=93)		음악 소비자 (n=131)	
		n	%	n	%
음악비평에 관해 알고 있는 정도	알고 있고 관심 있다.	40	43.0	49	37.4
	알고 있지만 관심 없다.	33	35.5	47	35.9
	들어 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19	20.4	34	26.0
	들어 본 적 없고 모른다.	1	1.1	1	0.8
6개월간 음악 비평 관련 글을 읽어 본 경험	5회 이상	15	16.1	13	9.9
	3~4회	17	18.3	18	13.7
	1~2회	37	39.8	55	42.0
	읽어 본 적 없다.	24	25.8	45	34.4
읽어 본 음악비평의 지면	인터넷 기사	6	6.5	23	17.6
	일간지(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4	4.3	17	13.0
	월간 객석	2	2.2	13	9.9
	예술에의 초대	7	7.5	8	6.1
	기억나지 않음	61	65.6	53	40.5
	기타 소식지 및 잡지	13	14.0	17	13.0
음악비평을 읽는 이유	음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43	46.2	51	38.9
	음악비평가의 관점과 내 관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24	25.8	34	26.0
	음악과 관련된 글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18	19.4	35	26.7
	공연 현장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2	2.2	6	4.6
	없음	6	6.5	5	3.8

음악비평 게재 경험	정기적으로 한다.	1	1.1
	가끔 한다.	10	10.8
	해본 적 있다.	19	20.4
	없음	63	67.7
6개월간 읽은 음악비평 지면 (중복 선택)	일간지	8	22
	음악잡지	31	21
	공연장 소식지	30	42
	인터넷 기사 또는 게시물	46	82
	없음	9	14

2. 음악비평의 역할과 가치

음악비평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에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음악 생산자 18명(19.4%), 음악 소비자 16명(12.3%)이었다. 많은 응답자가 음악비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은 결과이다.

음악비평이 음악 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도 음악 생산자는 23명(24.7%), 음악 소비자는 54명(41.2%)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항에서는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소 다른 인식 정도를 보였다. 음악 생산자들은 심지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명(36.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음악문화를 직접 생산해 내는 입장에서 바라 볼 때 자신들의 생산 활동에 음악비평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면담 결과 나타났다.

앞의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음악비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던 만큼 음악비평이 음악문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음악비평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

문에서는 음악 생산자는 음악에 관한 묘사가 66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었고, 작품 및 연주에 관한 평가, 음악 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와 음악 지식 전달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었다. 음악 소비자의 경우는 음악 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작품 및 연주에 관한 평가, 음악에 관한 묘사와 지식 전달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 응답 결과로 볼 때, 음악 생산자들은 음악 소비자들에 비해 가급적 음악비평이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전달에 중점을 두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음악 생산자들의 인식 조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긍정적 평가 지향, 부정적 평가 지향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음악 소비자는 음악 생산자들에 비해 보다 연주나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독자들은 음악비평이 현재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문항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을 음악 생산자는 61명(65.6%), 음악 소비자는 100명(76.3%)이 응답하였다. 독자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저변 확대를 통하여 음악비평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음악 생산자들의 57명(61.3%)이 자신의 작품 또는 연주, 그리고 음악 행사 등에 관한 음악비평을 읽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음악 생산자의 52명(55.9%)이 음악비평에서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용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음악비평이 자신의 음악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또는 미칠 것 같다는 의견은 40명(44.1%)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76명(78.5%)으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소감과 영향력을 볼 때 음악비평을 읽은 음악 생산자들은 음악비평에서 제

기된 문제와 평가에 관해 동의하지 않거나 불쾌해 하였지만 이후 음악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음악비평에 제시된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신의 음악 활동에 관한 평가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음악 생산자는 음악비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정적인 평가 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음악 소비자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작품이나 연주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입장이다.

<표 3> 음악비평의 역할과 가치

응답		음악 생산자 (n=93)		음악 소비자 (n=131)	
		n	%	n	%
현재 음악계에서 음악비평의 활성화 정도	매우 활성화	4	4.3	1	0.8
	활성화	14	15.1	15	11.5
	보통	40	43.0	73	55.7
	비활성화	32	34.4	40	30.5
현재 음악비평의 음악 문화 발전 및 활성화기여 정도	매우 비활성화	3	3.2	2	1.5
	매우 기여	7	7.5	7	5.3
	기여	16	17.2	47	35.9
	보통	36	38.7	53	40.5
	기여하지 못함	28	30.1	21	16.0
	전혀 기여하지 못함	6	6.5	3	2.3
음악비평의 음악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매우 기대	18	19.4	26	19.8
	기대	43	46.2	74	56.5
	보통	23	24.7	21	16.0
	별로 기대 안 함	3	3.2	2	1.5
	전혀 기대 안 함	6	6.5	8	6.1
자신과 관련된 음악비평을 읽은 경험	자주 본다	5	5.4		
	가끔 본다	12	12.9		
	본 적 있다.	40	43.0		
	본 적 없다.	36	38.7		

자신의 연주에 관한 음악비평을 읽는 소감	기쁘게 수용한다.	41	44.1
	평가에 의미가 있지만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18	19.4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21	22.6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불쾌하다.	2	2.2
	별로 관심이 없고 수용의사도 없다.	11	11.8
	많은 영향을 미쳤다.	9	9.7
음악비평이 자기 음악에 미친 영향	영향을 미쳤다.	31	33.3
	보통이다.	36	38.7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8	8.6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9	9.7
비관적 음악비평에 대한 수용	적극 수용한다.	14	15.1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57	61.3
	조금 수용한다.	15	16.1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4	4.1
	잘 모르겠다.	6	6.5
음악비평 활성화에 관한 인식	매우 활성화되기 바란다.	20	21.5
	활성화되기 바란다.	43	46.2
	보통이다.	24	25.8
	활성화되기 원하지 않는다.	5	5.4
	전혀 활성화되기 원하지 않는다.	1	1.1
음악비평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중복 선택)	작품 및 연주에 관한 평가	54	71
	음악 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	21	28
	음악 문화에 관한 기록	14	19
	음악 지식 전달	21	28
	음악에 관한 묘사	66	88

3. 음악비평가의 전문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비평에 관한 수용 의사가 떨어지는 것은 음악비평가들의 전문성에 관한 신뢰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음악 생산자는 39명(41.9%), 음악 소비자는 82명(62.6%)이 전문성을 신뢰한

다고 응답하였다. 즉 음악을 전공한 생산자들이 소비자에 비해 음악비평가들의 전문성을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음악 생산자들이 음악비평가들의 전문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음악비평가들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전공했던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음악가들은 더욱 비평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음악 생산자들은 음악비평가가 가져야 할 능력으로 풍부한 음악적 경험, 음악 분석 능력, 음악에 관한 묘사능력, 글쓰기 표현 능력, 아이디어 구상 능력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음악 소비자들은 음악 분석 능력과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서 묘사 능력, 글쓰기 능력, 아이디어 구상 능력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독자들은 음악비평가들이 음악을 감상하고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체가 겸비된 음악비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표 4>와 같이 독자들이 생각하는 음악비평가에게 필요한 능력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대학 교양 수업이나 전문 음악비평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구성에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음악 생산자들이 생각하는 전문적 음악비평가는 음악비평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보다는 음악을 전공하고 실제 연주나 작곡, 기획 경험이 있는 사람이 58명(62.8%)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주 경험이 없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음악비평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전문 음악비평가를 양성하는데 이론 교육에 치중하기 보다는 음악 전공자들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비평의 내용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 준다.

<표 4> 음악비평가의 전문성

응답		음악 생산자 (n=93)		음악 소비자 (n=131)	
		n	%	n	%
음악비평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	매우 신뢰	4	4.3	6	4.6
	신뢰	35	37.6	76	58.0
	보통	43	46.2	46	35.1
	신뢰하지 않음	7	7.5	2	1.5
	전혀 신뢰하지 않음	4	4.3	1	0.8
음악비평가의 필요 전공	연주자	20	21.5		
	작곡가	1	1.1		
	음악이론 전공자	3	4.3		
	문학자	4	1.1		
	음악 관련 전공자	58	62.4		
	음악비평 전문가	9	9.7		
음악비평가에게 필요한 역량 (중복 선택)	음악 분석 능력	54		88	
	음악에 관한 묘사 능력	21		46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 능력	14		20	
	글쓰기 표현 능력	20		29	
	풍부한 음악적 경험	67		87	

4. 음악비평의 과제

음악 생산자들은 음악비평 활성화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69명(74.2%), 음악 소비자들은 113명(86.3%)이 음악비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 감상과 비평 동호회 운영에 대해서는 음악 생산자 46명(49.3%), 음악 소비자 98명(74.8%)이 음악비평 및 음악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주례사 비평이라 불리는 호평 위주의 음악비평에 관한 질문에서는 음악 생산자 중 57명(61.3%), 음악 소비자 중 72명(55.0%)이 비판 과정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앞서 음악 생산자

들의 인식 조사에서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의사가 낮고 불쾌하다는 의견과는 상반되는 생각이었다. 반면 긍정적 평가를 중심으로 비평함으로써 음악에 관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음악 생산자 중 22명(23.7%), 음악 소비자 중 43명(32.8%)이 응답하였다.

또한 음악비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전문적 음악비평가 양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어서 음악 생산자는 지면 증가, 동호회 운영 및 활성화, 전문 잡지 창간 순으로 응답하였고, 음악 소비자는 동호회 운영 및 활성화, 지면 증가, 전문 잡지 창간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 동호회 운영에 관해 68명이 응답하여 음악 소비자들은 음악비평 동호회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였다.

<표 5> 음악비평의 과제

응답		음악 생산자 (n=93)		음악 소비자 (n=131)	
		n	%	n	%
음악비평 활성화의 필요성	매우 그렇다	24	25.8	33	25.2
	그렇다	45	48.4	80	61.1
	보통이다	24	25.8	18	13.7
	별로 그렇지 않다	0	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시민 대상 음악비평 동호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매우 기대할 수 있다	7	7.5	26	19.8
	기대할 수 있다	39	41.9	72	55.0
	보통이다	38	40.9	27	20.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4	4.3	4	3.1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5	5.4	2	1.5
주례사 비평에 관한 인식	비판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57	61.3	72	55.0
	긍정적 평가를 통해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22	23.7	43	32.8
	잘 모르겠다.	14	15.1	16	12.2

음악비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복 선택)	지면 증가	45	45
	전문적 비평가 양성	64	79
	동호회 운영 및 활성화	24	68
	전문잡지 창간	13	28

5. 음악비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지막으로 설문에서는 음악비평을 통해 음악 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형으로 질문하였다.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정보 전달 중심의 비평,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비평을 원하는 반면, 음악 소비자는 쓴 소리와 방향 제시를 우선으로 하고 듣기 좋은 소리 보다는 비판적인 관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야 한다고 하여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 생산자 측에서는 음악비평 활동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연주평의 경우, 공연장을 방문하고 관람하고 글을 쓰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료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에 음악비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음악비평계로 도전하는 인프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또한 음악비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음악비평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음악비평에 관해 저변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학교에서부터 음악비평을 해 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음악비평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관한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표 6> 음악비평 활성화를 위한 제언(서술형)

음악 생산자	음악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가와 비평가 그리고 음악 소비자가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음악비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비평하고 연주자들도 볼 수 있는 매체와 장이 더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 ● 음악에 관한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음악비평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 비평을 위한 비평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비평이 되기 바란다. ● 음악비평 활동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지식을 갖춘 비평가들이 많아야 하고 비판적인 관점도 여과 없이 소리 내야 한다. ●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칭찬보다 쓴 소리와 발전 방향 제시를 우선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평가는 객관적으로 비평하고 음악가는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학교에서부터 비평의 방법을 가르치고 습관을 기르면 좋겠다. ● 음악비평 전공 학과 또는 음악비평가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교양 과정으로 대학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연주자들이 음악비평을 객관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 음악비평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 음악비평의 지면 확대 및 대중적으로 쉽게 노출 - 공연장에서 열린 연주회에 관한 음악비평이 일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좋겠다. - 하나의 공연에 대해 여러 개의 음악비평이 게재되어 비교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IV. 부산의 음악비평 활성화 방안

1. 음악비평 지면의 증가

부산의 음악비평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의 다양한 지면이 증가되어야 한다.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 관련 정기간행물인 예술에의 초대, 예술 부산, 그리고 일간지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유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물론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기사를 볼 수 있지만 아날로그적인 책자를 선호하는 독자들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료화 된 종이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문화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음악비평을 실은 무료 소식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웹서핑에 친근한 젊은 독자층을 중심으로 전자 신문이나 SNS, 개인이나 기관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음악비평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특별한 제작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면에서 현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음악비평을 게재할 고정된 필자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이나 양의 음악비평이 확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한 편수 이상의 음악비평을 공연장 홈페이지나 SNS에 게재해 줄 전문 음악비평가를 고용하여 음악비평의 양과 질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비평을 게재한 애호가들에게 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리는 기획공연의 티켓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통해 음악비평을 장려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문 음악비평지의 발간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음악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음악비평지가 없다. 2001년부터 6년 간 발간되

있던 계간지 『음악과 비평』이 학술지 『음악응용연구』로 흡수, 통합됨으로써 그마저도 유지되던 전문 음악비평지의 성격이 모호해졌고,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가 발간하고 있는 『예술문화비평』은 문화예술 전반을 다루고 있어 지역 음악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 음악비평지는 음악비평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부산의 음악문화를 보다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비평가들과 음악가들, 그리고 음악애호가들이 특정한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시선이 서로 부딪히고 조화를 이루는 장으로서의 전문 음악비평지 발간이 요구된다.

2. 전문적 음악비평가 양성

부산의 음악 생산자는 소비자들에 비해 음악비평가들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음악가들의 입장에서 음악을 듣는 더 좋은 귀와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안목으로 제시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물며 음악에 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혹평이 공식적인 지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사실은 음악가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

음악비평가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음악 소비자들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음악 소비자들은 음악 생산자들에 비해 현재 음악비평가들의 전문성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성과 더불어 음악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더욱 믿음직한 음악비평가의 위상을 기대하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독자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음악비평가가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음악계의 흐름을 읽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좋은 귀를 가지고 이론과 실재를 겸비하여 음악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 음악비평가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더불어 음악비평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은 음악 대학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산 지역 음악 대학의 커리큘럼에는 음악비평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나 유사한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음악학과의 학부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작곡가나 연주가, 공연 기획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음악비평가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는 다양한 음악 전공과목들이 전문 음악비평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 과정이나 평생 교육원 체제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대학원이나 평생 교육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이미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음악가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음악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였고, 음악 생산자로서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음악 경험을 축적해 왔으므로 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음악비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다.

3. 음악비평 교육의 확대 및 체계화

전문적 음악비평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비평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문학과 미술과 같은 교과목에서는 작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학습 방법으로 비평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따라 내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되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음악비평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표현, 감상, 생활화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실제적으로 음악비평은 학생들이 연주하는 표현 영역과 생활화 영역 등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음악비평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감상 영역에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악비평이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신이 향유하는 음악에 대해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도권 교육 내에서 음악비평을 다룸으로써 앞으로 음악에 관한 언어적 소통이 지금보다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음악비평이 학교 교육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악비평의 경험이 부족한 음악교사들이 음악비평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음악비평의 개념과 방법, 교수방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4. 음악비평에 관한 홍보 및 동호회 활동 활성화

부산 지역의 음악 소비자들은 음악비평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음악비평이 저변 확대 되는 것이 음악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다양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임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음악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음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음악은 노래하고, 연주하거나 듣는 행위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고, 음악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 문화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음악

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서로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부산 시민들의 음악에 관한 관심과 음악비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는 앞서 제안한 지면 증가에 따른 음악비평 원고의 양과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비평

음악문화 역시 다른 예술 장르나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고 여러 예술이 융합하고 있다. 순수한 음악 예술을 즐기는 청중들도 있지만 크로스 오버 뮤직이나 뉴에이지와 같은 참신한 소재를 다룬 음악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또 음악과 미술, 음악과 무용, 음악과 건축, 음악과 문학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예술 분야가 하나로 만나 훨씬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것에도 기꺼이 지갑을 연다.

이처럼 음악이 대중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며 새로운 모습을 정립해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비평 역시 문화와 대중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 분야에 한정된 지식과 경험은 변화하는 음악 문화와 대중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음악비평가는 지속적으로 폭넓은 음악적 지식과 경험을 쌓고, 다른 예술 분야, 다양한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음악비평의 위기는 결국 대중과의 연결 고리가 약화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음악가들에게 대중들이 원하는 그리고 문화의 변화 양상에 알맞은 음악의 모습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반영된 음악을 대중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음악비평이 가져야 할 위상일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비평의 독자인 음악 생산자와 음악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음악비평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비평에 관한 경험, 음악비평의 역할과 가치, 음악비평가의 전문성, 음악비평의 과제 등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지역의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음악비평에 관해 알고는 있으나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음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비평을 읽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터넷, 공연장 소식지, 음악잡지 등을 통해 음악비평을 읽고 있었다.

둘째, 부산 지역 음악비평의 독자들은 음악비평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음악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음악비평이 음악문화 발전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비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음악 생산자들은 긍정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수용하지만 부정적 비평은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음악비평은 본연의 기능인 음악 작품과 연주에 관한 평가, 음악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음악비평가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부산 지역 음악 생산가는 음악 소비자들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 생산자들은 해당 음악 분야의 음악 전공자들이 음악비평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독자들은 음악비평가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풍부한 음악적 경험과 음악 분석 능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넷째,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부산 지역의 음악 비평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비평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음악비평을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이 확보되고 실력 있는 음악비평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음악 소비자들은 일반인들을 위한 음악비평 동호회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부산 지역 음악비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음악비평을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음악비평에 관한 홍보 및 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일반 학교 음악교육 및 대학 교양 수업을 통해 음악비평이 저변 확대되고 음악비평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적 음악비평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음악 대학 내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음악비평은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의 매개이다. 그런데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 살펴 볼 때, 소통에 필요한 충분한 활동과 신뢰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변화하는 음악 문화와 사람들의 기호, 각종 기술의 변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앞으로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시선들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비평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을 이루어 음악비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부산 음악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김원명, 『경제사회와 음악』, 세종출판사, 2001.
_____, 『음악의 지평 너머로』, 더포인트, 2014.
박진홍, 『글 속에 음악을 담다』, 음악과 생활, 2012.
_____, 『음악비평, 음악으로 사색하는 즐거움』, 음악과 생활, 2014.
니콜라스 쿡, 『음악에 관한 몇 가지 생각』, 곰출판, 2016.
Werner, B., 『음악비평』, 삼호출판사, 1991.

2. 논문

- 강혜진, 「국음악비평의 현실과 대안」, 『한국음악문화연구』 4, 2013.
김원명, 「부산음악비평문화의 최근 흐름」, 『향도부산』 36, 2018.
김창욱, 「부산 음악비평의 현황과 과제」, 계간 『예술문화비평』 창간호, 2011.
박진홍, 「비평가로서의 슈만」 『음악과 비평』 5(2), 2006.
성기완·신현준, 「음악비평상 당선작 음악비평상 심의평」,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2012.
신설령, 「음악비평의 역사와 실제」, 『음악과 민족』 8, 1994.
이기정, 「96년 부산 비평문화의 분석」, 『음악과 민족』 13, 1997.
Karl Aschenbrenner, The concept of music criticism. Boston: Reidel, Dordrecht. 1974.
Sadie, 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12. NewYork: Grove. 2001.

3. 정기간행물 및 웹사이트

- 고은미, 「음악과 비평」, 『음악저널』 344호, 2018.
고클래식(<http://www.goclassic.co.kr> 검색일:2019. 1. 31.)

- 브리태니커 사전(<https://www.britannica.com/topic/musical-criticism> 검색일: 2019. 1. 31.
- DANIEL J. WAKIN. Newspapers Trimming Classical Critics. Newyork Times, 2007년 6월 9일(<https://www.nytimes.com/2007/06/09/arts/music/09crit.html> 검색일: 2019. 1. 31.)
- George Marriner Maull. The End of Classical Music Criticism, 2018년 1월 16일 (<https://discoveryorchestra.org/2018/01/the-end-of-classical-music-criticism> . 검색일: 2019.1. 31.)

투고일 : 2018. 11. 12. 심사완료일 : 2018. 12. 06. 게재 확정일 : 2018. 12. 14.
--

| Abstract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Music Criticism through the
Survey with Music Producers and Consumers in Busan

Park, Jin-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or a plan for activation of music criticism through a survey of readers' recognition of music criticism in Busan. To this end, surveys were conducted with readers that were divided into music producers and music consumers. Music producers are people like composers, performers, and performance organizers, that directly create a variety of musical phenomena and provide the audience the subjects for musical criticism. Music consumers are people like audiences visiting the concert hall, music or radio listeners, or amateur musicians who like to play or create their own music, that enjoy music through performances, music sources, and records. The survey questions were about recognition of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music criticism, the role and values of music criticism, expertise of music critics, and subject of music criticism. 93 music producers that work in the area of Busan and 131 music consumers that live in Busan answered the surveys.

According to the survey, both the music producers and consumers had high expectations about the role of music criticism, but they did not think music criticism was activated. Also, if music criticism is activated, they expect i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sic culture. They thought that in order to do this, a number of professional music critics would have to be trained, and general school music education, amateur club and university education must be conducted simultaneously. They also thought

that it requires objective and reliable criticism, not just criticism filled with pleasant words, and the acceptance of this by the musicians is also importan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readers often received music criticism through electronic newspapers and personal blogs rather than paper. To this end, the increase of paper pages like daily newspapers and magazines is also necessary, but many people also thought that the number of music critics and approaches using the internet environment were necessary.

We hope that the role and the values of music criticism will continue to be promoted, and that music criticism will be expanded in various ways so that everyone can communicate through musical material, and additionally, that the music culture of Busan can further develop.

Key Word : Music Criticism, Music Critic, Busan Musical Culture, Activation of Music Criticism, Music Producer, Music Consumer

